

# 문화자원 활용 ‘인문도시 동구’ 쟁걸음

사람 중심 환경 구축...이웃 소통·책 프로그램 등 다채  
감수성 제고 인문대학 운영, 지표 설정 위한 설문 진행

광주 동구가 구민의 풍부한 인문적 소양을 배양하고, 사람 중심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인문도시 설계에 박차를 가한다. 주민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및 책 관련 프로그램 등 계층·세대간 소통을 아우른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생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6대 목표로 ▲구민의 풍부한 인문적 소양 ▲계층·세대간 소통과 통합 ▲동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생성 ▲국적·장르를 초월한 포용하는 열린 도시 ▲사람·지식·문화자원의 교

류 활성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등을 정했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동아리를 지원하고, 리빙랩에서의 문제 해결, 인문대학에서의 토론 등을 통한 주민 주도형 동구인문도시를 추진한다.

먼저 동명동·지산동·계림동 일원을 중심으로 책마을을 조성해 인문도시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책 판매부터 디자인, 인쇄, 출판 등 관련 업종과 현 책방 거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책 마을을 구축하기에 앞서 독립서점 및 책 관련 업종의 입점을 독려하거나 지원을 하며, 북 큐레이터 등 인력 양성에 나선다.

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서점 동아리·북 페어·작가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며, 거리 서가 등을 중심으로 아트 간판을 설치하는 등 가로 조성도 계획 중이다.

주민이 책과 함께하는 행사를 일상에서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골자로 '책소풍'을 오는 6월과 10월 진행한다. 책을 단지 상품 판매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독서 주변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청사 로비를 인문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인문 감수성을 높일 전망이다.

현재 청사 1층에 조성된 책 정원은 관내 독립책방, 헌 책방 구매도서 및 공유도서로 서가를 조성했으며, 분기별 주제 선정을 통해 이달의 책, 작가의 서재, 지역 출판물 등 주제별 서가를 운영 중이다.

주민의 인문학적 감수성 제고와 함께 소통·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도 왕성히 진행중인 '동구 인문대학'도 주제별로 진행한다.

동구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문대학 명예교수단을 통해 자문한 후 5·18광주민중항쟁, 삼국지, 철학, 동구 공동체 재생 등의 내용으로 상반기 강화를 꾸렸다.

한편, 동구는 인문도시 목표와 추진과정을 더 쉽게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성별·연령·거주지 및 거주기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독서량은 평균 1·3권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문화시설 방문횟수는 평균 1.7곳, 관내 문화자산 인지도(인물·축제·행사·문화시설 등)의 경우 총 13개 중 4.7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지기자

## 박종균 의장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장이 최근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지방의회 공로부문에서 지방의회봉사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충실히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집행부와 의견교환에 소신을 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등에서 공동 주관했다.

박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는 등 구의회 품격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송지기자

##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원하는 수업을’

서구, 연말까지 관내 39곳서 111개 강좌 진행

광주 서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39개 작은도서관에서 총 111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독서논술, 동화교실 등 아이들을 위한 강좌에서부터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등 성인을 위한 강좌까지 맞춤형으로 구성되며 강좌당 10~2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만 국한된 장소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모여드는 공동체 공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도서관에서는 인문독서동아리 지원, 작은도서관 맞춤형 지원, 특화 작은도서관 육성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환준기자

##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사업 본격 추진

동구,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소태천 생태복원 나서

광주 동구가 소태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태천은 소태제에서 발원해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으로 흘러드는 도심하천이다. 도심하천으로는 드물게 최근 상류지역에 두꺼비, 도롱뇽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인근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비료과다 사용, 복개구간 마을오수 유입 등으로 하류지역에는 매년 조류에보제가 발령될 만큼 수질이 악화됐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마을도랑살리기 사업'에 공모, 소태천이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20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소태마을 주민 대표, 광주전남녹색연합,

K-water영산강보관리단과 함께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앞으로 사업예산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협약기관과 함께 도랑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도랑환경 정비 ▲수질정화시설 식재 ▲민관공동 환경정화활동 ▲주민·학생 대상 환경교육 ▲생태·수질조사 ▲오염원유입방지대책수립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주변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 서구, 7월까지 초등생 대상 ‘긍정심리 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가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 성장학교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강화해 아동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마음성장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요청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낙관성 훈련, 긍정적 자기소화, 긍정대화법, 감사와 배려, 뽀샵미소 등의 주제를 통해 아이들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진다.

또, 자아탄력성 검사, 행복감 검사, 우울감 검사 등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최환준기자



경로당 원예치료 프로그램 눈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 동구는 지난 22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유 공간인 관내 지원2동 용산경로당에서 임택 청장과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정화식물을 활용한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등의 '원예치료' /광주동구제공

## 서구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대학 수강생 모집

오는 31일부터 초등, 내달 19일부터 중등 부모반 운영

광주 서구가 학부모 대학 강좌로 자녀 이해, 소통, 학습, 진로 등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제1기 초등부모반 '부모가 아는 만큼 자라는 아이', 제2기 중등 부모반 '사춘기 아이와

함께 나아가기'란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 부모반은 31일부터 ▲자녀와의 공감대화 ▲가족 통해야 산다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만드는 환경디자인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는 공부라는 주제로 총 4강으로 진행되며, 행복한 연구소 박재원 소장, 송지희 참마음 아

카데미 대표 등 유명강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중등부모반은 6월19일부터 ▲엄마 반성문으로 돌아가라 ▲자녀의 성이해하기 ▲차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직업 ▲대한민국 사춘기 사용설명서 등을 주제로 다수의 방송출연과 저서로 유명한 이진아 브랜드유리터집센터 소장, 박정욱 창의인재교육원 대표의 강연이 펼쳐

진다.

서구 관계자는 "학부모 대학은 학습코칭, 진로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마련된 심화형 학부모 프로그램"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강좌 마련으로 자녀 교육하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는 31일부터 6월28일까지 서구청 보건소 교육장(3층)에서 매주 수·금요일에 진행되며 강의 일정 확인과 참여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에서 가능하다.

/최환준기자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